금주의 법구-〈잡아함경〉
성내는 마음을 가라앉히면
근심과 걱정이 없어진다.
성냄은 독의 근본이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183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2년 · 단기 4351년 음력 12월 15일) 2018년 1월 31일 수요일



청년불자 산실, 호국연무사에 핀 군불심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선묵 혜자)는 1월 21일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에서 신년 첫 수계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수계받은 5000여 군장병들은 불심으로 하나로 뭉쳐 국가 안보 일선에서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했다. 사진은 교구장 선묵 혜자 스님이 여군 훈련생에게 연비하는 모습이다. 향대신 도장으로 연비를 하는 것도 시대에 맞춰 바뀐 신행 풍속도다.

글=노덕현 기자 · 사진제공=조계종 군종특별교구

불교 항일인사 판결문 집대성한다

조계종 불교사회硏, 올해 불교 항일운동 조명 역점

80인 대상… 새인물 발굴
2차례 학술세미나 비롯해
연말에 사료 모음집 발간
잡지 · 선언문 등 5권 분량
봉정법회 · 유품 전시회도

교과서 불교서술 검토 후
2020 개편 오류 수정 요청
집필진 참고자료 배포 계획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내년 3.1운동 100년을 앞둔 올해 불교계는 항일인사 발굴 · 조명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한다. 특히 기존과 새로 확인된 불교계 항일인사 등 총 80인의 일제강점기 판결문이 집대성 돼 당시 불교계의 항일운동 업적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조계종 백년대계본부 산하 불교사회연구소(소장 일감)의 올해 주요사업은 크게 '항일인사 조명'과 '교과서 불교서술 개편 반영'으로 나뉜다. 먼저 항일인사 조명과 관련해 오는 6월과 11월 각각 호국불교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6월에는 이고경 · 박광 · 박민오 · 김법린 등 인물을 중심으로 한 독립운동을, 11월에는 항일의병과 통도사 · 표충사, 불교청년을 주제로 열린다.

가장 눈여겨볼 것은 올 연말 발간 계획 중인 5권 분량의 사료(史料)모음 자료집이다. 이는 불교사회연구소가 국가기록원을 비롯해 개인소유품 등 전방위적인 조사를 펼쳐 수집한 것으로, 일제강점기 불교계 항일인사 판결문과 알려지지 않은 불교잡지, 회고록 · 선언문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 중에서도 총 80인의 항일인사에 대한 판결문이 가장 큰 교계 관심을 끌 전망이다. 여기에는 현재 알려진 불교계 항일인사 외에 법명과 속명이 일치하지 않아 항일인사로 분류되지 않았던 인물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자료집이 발간되면 일제강점기 불교계 항일운동의 영향력이 재평가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당시 항일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가명을 쓰는 일이 빈번해 분류가 쉽지 않았지만 전문연구자들이 속명과 법명 일치 작업까지 마친 상황이다.

김광식 불교사회연구소 3.1운동 연구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항일운동과 관련된 불교계 사료는 있지만 이를 한 데 묶어내는 작업은 드물었다. 임혜봉 스님의 저서 이후 이 같은 활동이 미진했다"면서 "최초로 불교계 항일 · 민족운동을 집대성하는 데 의미가 있다. 앞으로 연구자들의 기초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연구소는 오는 3월경부터 판결문의 한자와 일본어 등에 대한 번역 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 초에는 3.1운동 100년에 앞서 항일운동 관련 사찰 및 개인 소장 유물과 유품 등을 취합해 불교중앙박물관서 전시회를 열 예정이며, 이때 발간 자료집 봉정법회도 함께 봉행된다.

교과서 불교서술 개편 반영은 2017년 개정 출판된 초 · 중 · 고교 역사, 윤리교과서에 나타난 불교관련 서술 오류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 2015년 불교사회연구소는 학교 채택률이 높은 교과서 수록 내용에 대한 불교서술 오류를 수정해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이를 받아들여 각 교과서 출판사에 지침을 전달한 바 있다.

연구소는 올해 새로 수정 반영된 불교서술 검토 후 오는 6월 세미나를 열고, 미진한 부분이 2020년 교과서 개편 때 추가 반영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2020년 교과서 개편작업이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됨에 따라 〈바람직한 종교적 기술을 위한 집필진 참고자료〉를 제작 · 배포해 불교서술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실제 2015년 연구소 측이 도덕 · 통합사회 교과의 〈2015 개정 교과서 집필 참고자료〉를 제작,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를 비롯해 검정교과서 출판사 등 10여 곳에 배포했을 당시 각 출판사 반응이 매우 호의적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외에도 청소년 불교역사 교양서인 〈청소년을 위한 한국불교사〉(가칭)가 2월 말 출판 예정이다. 이 책은 석가모니의 탄생부터 교단 결집, 중국불교 성립, 한국불교 도입, 삼국 · 통일신라 · 발해 · 고려 · 조선을 거쳐 불교계 독립운동까지 총 30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더불어 팔만대장경판과 〈삼국유사〉, 〈직지심체요절〉 등 찬란한 불교문화까지 소개한다. 지난해 실시하지 않은 대국민 여론조사 사업도 진행된다. 올해 상반기 설문조사 설계 후 9월 여론조사를 실시해 10월 보고서를 완성할 계획이다.

불교사회연구소장 일감 스님은 "3.1운동 100년을 기념해 불교계의 성과를 내는 한편, 호국불교 연구를 통해 아직 규명하지 못한 역사적 부분들을 정리하고자 한다"며 "35대 집행부 의견을 수렴해 종단 발전을 위한 방향에 맞춰 추가적인 활동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영국사지 출토 석편 알고보니 最古 '천자문'

박찬문 팀장, 1월 12일 목간학회서 발표

혜거국사비와 서체 같아
10세기 경 조성 추정돼
고려 사찰 한문교육 활용
묘법연화경 석경도 확인

서울 도봉서원 터 하층에서 확인된 영국사지서 출토된 석편 중 하나가 고려 초기에 만들어진 '천자문(千字文)'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천자문' 석편이다.

박찬문 불교문화재연구소 유적연구실 팀장은 1월 12일 한국목간학회 정기발표회에서 발표한 '서울 도봉서원 하층 영국사지 출토 금석문 소개'에서 "2012년 출토된 석편 중 하나가 국내 최초이자 최고(最古) 천자문 석편"이라고 밝혔다. 석편 검증에는 송광사 성보박물관장 고경 스님과 이완우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가 참여했다.

'천자문 석편'에는 천자문 총 250구 가운데 163구인 '치본어농(治本於農, 다스림은 농사로 근본을 삼는다)'의 '치본', 165구인 '숙재남무(載南畝, 남쪽 이랑에 나가 일을 한다)'의 '숙재', 167구인 '세숙공신(稅熟貢新, 익은 곡식에 구실을 매기고 햇것을 공물로 바친다)'의 '세숙'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박 팀장은 "영국사 혜거국사비편이 10세기에 조성됐다. 확인된 비편들의 서체들도 혜거국사비편과 유사하다"면서 "고려시대 초기인 10세기에 조성됐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학회 발표 당시 시기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돼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의견서를 제출한 이완우 교수도 "천자문 석편의 석질은 다른 석경과 비편과 같다"며 "이는 고려시대 사찰에서 한문교육을 위해 천자문을 석각했음을 보여주는 매우 희귀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팀장은 다른 석편 3점은 〈묘법연화경〉을 새긴 국내 최초 고려시대 석경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다른 1점은 변상도 일부로 연꽃잎 무늬가 새겨져 있다.

이에 대해 이완우 교수는 "이들 석경은 서풍과 각법으로 볼 때 통일신라 때 조성된 구례 화엄사의 〈화엄석경〉, 경주 창림사지의 〈법화석경〉, 남산 칠불암의 〈금강석경〉의 전통을 계승한 고려시대 최초의 석경"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 도봉서원은 1573년 조광조(1482~1519)를 기리기 위해 세워졌다가 1871년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폐쇄됐다. 그동안 발굴조사에서 도봉서원이 고려 때 영국사 터에 세워진 것을 확인했으며, 고려시대 등 불교 문화재 100여점이 출토됐다. 현재 도봉서원 복원사업은 중단된 상황이다.





천자문이 새겨져 있는 영국사지 출토 석편(사진 위쪽)과 석편의 탁본(사진 아래쪽). 천자문 석편은 10세기에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부산聯 A5
성도재일 법회



설정 스님 A6
성도재일 법문

현실을 꿈처럼 재해석하게 하는 불교적 환타지,
무협소설 같은 속도와 긴장,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지혜와 술수의 맞대결…

이 소설은 통일신라시대 중기에 일어난 대공의 난을 다루고 있다.

모름지기 소설은 첫째, 재미가 있어야 하는데 작가 정의성의 〈대공의 난〉은 그 첫째를 충족시키고도 남음이 있다. 암흑의 시기를 통과하는 청춘 남녀들의 사랑과 비극이 폭염 속의 단비 같고, 장마 속의 햇살 같은 신들린 작가의 손에 의해 반전에 반정을 거듭하며 절묘하게 펼쳐진다.

〈삼국사기〉,〈삼국유사〉가 갖는 비통일적인 특성들이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결합, 재창조되어 역사 속의 인물들을 더욱 생생하게 눈 앞에 되살려냄으로써 특별한 재미와 함께 인생사의 오묘한 이치를 사유하게 된다.

역사에 대한 깊은 연구와 방대한 자료조사, 검술과 진법에 대한 작가의 해박한 지식과 갈고 닦은 내공이 작품 속에 녹아 있어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박진감을 선사하면서, 영화나 드라마처럼 생생하게 펼쳐진다.

한국불교대표방송 BTN 대표이사 서성두



대공 大恭의 난 亂
정의성 역사소설 | 신국판 | 704쪽 | 값 22,000원
현대불교신문사

"운명의 화살은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법이 없더라"

불법이 꽃을 피웠던 통일신라,
그러나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더욱 밝게 열리듯이
법멸의 월식 기간이 있었으니, 그 시대를 건너야 했던 왕과 여왕,
화랑과 고승들, 그리고 천하제일을 다투는 검객들의 사랑과 운명이
밤하늘과 별처럼 오늘 우리의 가슴을 적신다.



작가 정의성(鄭義成)

신라의 김대성 공은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불사를 지었고
현생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지었습니다.
그 멋들어진 효성이 천이백년이 훌쩍 지난
지금에도 남아 있습니다. 저도 작게나마
부처님께 이 책을 지어 바쳐
부모님의 행복을 빌고자 합니다.

구입처 : 02)2004-8216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